

**남편**의 생일 초대손님들은 여섯 시 반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겨울의 짧은 해는 다섯시 반을 넘기면서 땅거미를 몰고 왔다. 선희는 일손을 한층 재게 놀려야 했다. 갈비를 얹힌 솥에서 식욕을 돋우는 냄새가 풍풍 새어나오는 동안, 굴과 명게를 씻어 소쿠리에 담고, 생선회의 맛을 더할 초고추장을 만들었다. 그런 뒤엔 날것으로 먹을 야채를 씻어야 했다.

어느새 창밖에 어둠이 가득히 내리는가 했을 때, 난데없는 오토바이 소리가 선희의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게 했다. 부엌창 너머로 내다보이는 바깥길 공터 옆엔, 포장마차와 타이탄 트럭이 잇대어 세워져 있었다.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거리로 수레를 끌고 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안주감 마련이 늦어지는 모양이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둔 채 가족점퍼 차림의 한 청년이 포장마차 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청년이 입에서 담배꽂초를 뿜아 공터 쪽으로 휘 던지고 나서 오토바이에 올라앉은 것과 동시에, 선희는 시선을 안으로 당겨 멈추었던 일손을 다시

놓렸다. 땅이 흔들리는 폭음을 남기고 오토바이 소리는 멀리 사라졌다. 안과 밖에서 잠시 교차된 그 무심한 한 순간은 그렇게 해서 덧없이 스러지는 듯 싶었다.

손님들은 모두 거의 정시에 도착했고, 선희가 아침부터 돕는 이와 함께 준비한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다. 얼음에 채워둔 삼패인 병의 코르크 마개가 튀어올라 천정을 뺨 치면서 생일잔치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저마다 분홍빛 액체가 찰랑거리는 유리잔을 쳐들어, 마흔다섯번째 생일을 맞은 선희의 남편을 위해,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수고한 아내를 위해 축배를 바친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의 직속 부하인 광과장이 손으로 집은 생물을 한 입 깨물고 나서 말했다.

「상무님은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남은 하나도 못 가진 복을 도대체 몇 가지나 가지신 겁니까.」

「네 맞아요. 사회적 지위로 보아도 남 부러울 게 없으시고, 그럼 같은 집에, 공부 잘 하는 아들 딸에, 아름답고 현숙한 부인에, 재산도 평생 먹을만치

## 포인트초대

# 담배꽂초 하나



쌓아두셨으니, 그야말로 복이란 복은 모두 싹쓸이를 하셨지 뭐니까。」

윤차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의 남편만이 그 말에 의미가 있는 듯 식탁 너머로 맞은편의 아내를 건너다보며 넋지시 눈을 꿈벅였다. 그것은 마치 「자네가 날 복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짜 내용을 알면 깜짝 놀라거야」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내는 배시시 웃는 것으로 남편의 눈짓에 응답을 보냈다.

눈치 빠른 강과장이 이를 눈치채고 잼싸게 물고 늘어졌다.

「두 분만 감춰두고 즐겨워 하시지 말고 우리에게도 알 권리를 좀 나눠주십시오。」

「이 사람 앞에선 이빨도 못 쐈다니까。」

나무라는 체 하만서도 선희의 남편은 강과장의 눈치 빠름이 과히 싫지 않은 게 분명했다. 좌중을 둘러보고 나서 마지막 듯한 듯이 그가 입을 열었다.

「십여년 전에 쥐꼬리만한 유산으로 용인 곤지암 부근에 임야 오천 평을 사두었었지. 그런데 얼마전 복덕방이 나타나서 평당 십만원씩 쳐줄테니 팔라는

거야.」

「우와, 5억이네. 그래서 처분하셨습니까?」

「한 십년 더 물어두고 있을 작정이야.」

「에이, 나 같은 팔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현금 만지는 재미를 톡톡히 보겠어요.」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상무님이 생각 잘 하신 거예요. 경제적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선 부동산을 지니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렇게 시작된 부동산 얘기는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수록 한층 열기를 더했다. 모두가 속에 불이 난 듯 양주잔을 들어붓는 바람에 얼음이 금방 없어졌다.

선희는 또 한 차례 얼음을 가질러 주방으로 갔다. 맨송맨송한 정신으로 사내들의 그 가열한 술자리에 앉아있으려니, 골이 지끈거렸다. 얼음조각으로 이마를 문지르면서 문득 창 너머 어둠 저편을 내다볼 그녀는 한 순간 멈칫했다. 공터옆 길가에 세워둔 포장마차에서 불길기 솟고 있었다. 쓰레기를 태우는 건가 했으나, 불길은 분명 포장마차의 지붕을 활고 있었다. 그렇담 아까 오토바이 청년이 버린 담배꽂초가 실화의 불씨가 된 걸까? 하고 생각하는



### 서영은

- 1943년 강원도 강릉출생
- 1968년 <사상계>를 통해 문단에 데뷔
- 1983년 「먼그대」로 제7회 이상문학상 수상
- 작품집으로 <황금깃털> <사랑을 건너는 법> <아반인> <그리운 것은 문이 되어> 등이 있음

사이에 불길은 점점 크게 번지고 있었다.

선희는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얼음통을 든 채 술자리로 되돌아갔다. 아직 미혼인 미스터 정이 최근 분당의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면서 겪은 체험담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의 등 뒤 창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선희네 담을 타넘으려는 듯이 훨훨 불 붙고 있었다. 선희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서 살며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보, 저 밖에 불이 났어요.」

「뭐야, 불이?!」

남편이 펄쩍 뛰어오르며 놀라는 바람에 손님들 모두가 일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 포장마차가 타네.」

펄쩍 뛰어오를 때와는 달리, 남편의 음성이 어딘지 맥이 빠진 듯 들렸다. 선희는 남편의 그러한 반응에 이상한 배반감이 치밀었다. 불이 옮겨붙을 위험도 없고, 타는 것은 포장마차 정도인데 뭘, 하는 남편의 이기적인 내심이 읽어졌기 때문이었다.

「어디 가는 거요?」

남편의 음성이 뒷덜미를 잡아당겼으나, 선희는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 대문을 열고 보았을 때는 불길이 포장마차의 지붕을 태우고 몸체로 옮겨붙고 있었다. 길에는 집밖에 세워둔 승용차들뿐, 사람이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몸을 되돌려 종종걸음으로 계단을 뛰어오르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호스, 호스!」

선희는 저도 모르게 외쳤다.

「가만 있어봐.」

남편이 나무라듯 면박을 주었다. 선희는 주춤했다. 그 목소리에서 섬뜩한 단절감이 느껴졌다. 선희가 계단 한가운데 엉겨주춤 서 있는 동안, 남편은 길을 건너 길 모퉁이의 간판제작업소로 들어갔다. 야간작업을 하던 청년 서넛이 달려나와 불길에 삼켜진 포장마차를 보고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 중의 한명이 불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나왔다.

포장마차를 몽땅 집어삼킨 불길은 이제 트럭으로 옮겨붙고 있었다. 밖으로 쏟아져 나온 손님들이 길에서 웅성거렸고, 간판업소 청년들이 저마다 그릇들을 가지고 공터 옆 집에서 물을 받아 나와 포장마차에 끼얹었으나, 마차 속에 인화성이 강한

물체가 있는 듯 좀체 불길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트럭의 기름통이 폭발하면 큰일인데.」

미스터 정이 음성이었다. 남편이 비로소 위기를 느꼈음인지 다급하게 소리쳤다.

「소방서, 소방서에다 전화해.」

「강과장이 했어요, 곧 올거예요.」

앞집에서 물을 받아 불길 위에 끼얹던 청년 하나가 선희에게 대야를 내밀며 말했다.

「수도물이 잘 안 나와요, 물 좀 받아주세요.」

선희는 대야를 받았다. 뒷문으로 가서 돕는 이에게 호스를 빼라고 할려는 참에 남편이 대야를 채뜨리며 벌떡 화를 냈다.

「당신은 가만 있으라니까.」

그러자,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골목 밖에서 들려왔다. 소리는 이내 가까워지며 붉은 경보등이 골목의 어둠을 헤치고 다가왔다.

지휘본부라는 빨간 빛깔의 봉고차에서 방화복



차림의 남자들이 뛰어나왔다. 뒤이어 커다란 물탱크를 적재한 차와 붉은 빛깔의 크고 작은 차들이 순식간에 긴 골목을 가득 메웠다. 점퍼 차림의 지휘본부장이 워키토키에 대고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여기저기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가 하면 경보등이 어지럽게 핑핑 돌아갔다.

트럭의 휘발유통이 터져 불길이 인근의 주택으로 옮겨붙으면 어쩌나 싶었음에도 막상 그토록 어마어마한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고 보니 은근히 쾅기는 맘이 없지 않았다. 불구경을 나온 인근의 주민들은 누구나 다 그런 내심이었다. 더우기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는 강과장은 한층 마음 쾅기는 눈치였다.

「사모님, 저 사람들이 전화했느냐고 물어보면, 안 걸었다고 딱 잡아떼세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약속 빠른



귀뜸이 심히 불쾌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쳤으면 얼마든지 소방서의 힘을 빌지 않고도 불을 끌 수 있었으므로, 아까운 인력과 장비를 헛되이 낭비하게 한 것은 「우리」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라고 그녀는 자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필경 영세민일 것이 분명한 포장마차와 트럭의 주인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고 얼마나 상심할까 하는 것이 선희의 마음을 무겁고도 아프게 했다.

「자, 자, 이제 더 불거 없다구, 들어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분명한 남편의 태도에 선희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다.

「소방차는 당신이 부르자구 했잖아요. 당신이 보상해야 해요.」

「무슨 소리야. 앞집에서 불렀다는데. 하역간 미친 놈들이야. 남의 집 앞에도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는 법이 어디 있어. 자, 자, 이보게들 들어가자구.」

남편의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뒤를 따라 슬금슬금 때문 안으로 들어갔다.

「사모님 들어가시죠.」

강과장이 선희의 옷소매를 가볍게 잡아 끌었다. 선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반대편으로 휙 돌아섰다. 그녀의 맘속에선 뭔가가 그들에게 영원히 결별을 선언하는 것 같았다.

포장마차는 앙상한 잔해만 남고, 트럭은 반이나 파손되어 있었다. 소방서원 한사람이 손전등으로 불을 비춰가며 진화작업을 계속했다. 호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가 길바닥을 도랑물처럼 흘러내렸다.

십오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살았음에도 남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불은 꺼졌지만 선희의 맘 속에선 이제야말로 남편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 이번 일도 다른 여느 때의 부부싸움이나 마찬가지로 아랑이라는 망과의 보자기에 싸서 덮어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부생활이란,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 그다지도 단란해 보이는 가정이란 속으로 얼마나 정그러운 인내로 버티지는 것인지?... 선희는 쓸쓸한 맘으로 가로등 불빛에다 자신의 손등에 생긴 명자국을 비쳐보았다. ●